

“전주대대 이전 백지화를”

이전 반대 범 완주군 공동대책위 출범

완주군민들의 이전 반대 범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 전주대대 이전의 완전 백지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일 전주대대 이전 반대 범완주군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일·정성모·정인철·이헌철·송병주, 이하 범완주군공동대위)는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기관단체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범완주군공동대위는 전주대대를 완주군과 협의 없이 전주시·국방부·35사단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를 끝까지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범완주군공동대위는 ‘우리의 결의’라는 결의문을 통해 △전주시의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완주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전협의없이 추진하는 전주

대대 완주 이전을 결사 반대하며 △국방부와 35사단은 위법한 전주대대 이전 협의요청서를 즉각 반려하고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울러 △전주시는 완주-전주 상생발전의 정신을 훼손하고 완주군 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전주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범완주군공동대위와 10만 완주군민은 전주대대 완주이전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 투쟁 할 것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공동대위는 전주시장이 ‘완주군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 외에 전주시 공무원이 수신했지만, 이것이 최종 철회 또는 백지화된 것이 아닌 만큼, 신속·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완전 백지화를 이뤄 낼 것을 다짐했다.

또 이날 20일까지 이전 반대 의지를 담은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명

부를 국방부에 전달하는 한편, 이전과 관련한 각종 오해와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전력투구해나가기로 했다.

송병주 공동위원장은 “전주대대는 전주시의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대로, 106연대로의 이전시 초기 대응시간이 20분 이상 길어져 작전 끝난타임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는 등 향토 방위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토방위 및 국가안보는 물론, 지역상생과 완주발전은 저해하는 전주대대 이전은 완전히 백지화되어야 하고, 완주군민은 이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성일 군수가 지난 6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찾아 전주대대의 이전 철회 또는 백지화를 표명하자, 김 시장은 “완주군 동의 없는 (대대 이전)추진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뜻을 담은 공문을 완주군에 발송한 바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무주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준비 돌입

진안군, 주민공청회 개최 이장 등 150여 명 참석



진안군은 11일 지역주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진안군은 11일 지역주민, 이장, 기관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공원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진안 산악초전시관에서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질, 관광 등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지질공원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질공원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전달하고,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효과와 사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및 관계자의 이해증진과 의견수렴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생소한 지질공원의 개념, 추진현황, 규제사항 등에 관한 이해를 돕고, 지질공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경관자원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으로 2012년 1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

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 평화지역, 무등산, 한탄·임진강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2018년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다.

진안-무주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입증된 진안군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다른 여러 중요한 자연·역사·문화와 결합하여 교육·관광에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진안군은 지질탐방로 개설, 지질탐방프로그램, 탐방객센터, 지질설명안내관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및 해설사 자체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마이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구방산, 우일암반일암, 천반산, 수선루, 갈바트형 삼각주 등을 바탕으로 인증을 준비해 왔으며, 인증 신청에 앞서 지질평가를 최종 확정하고 영상제작, 홍보책자,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성공적인 인증과 운영을 위해 주민의 이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까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진안-무주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시설을 정비하는 등 필수이행 조건을 완료하고 8월중으로 환경부에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8월까지 읍면 이장단 중심으로

장수군은 11일 오전 11시 장수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김윤섭 장수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이장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월까지 읍면 순회로 진행된다.

이날 군 재정규모 및 예산편성내역과 주민참여예산 편성범위 및 참여방법, 주민참여 제안사업 작성요령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군은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제한 및 예산절감사업, 단위사업별 1억원 미만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군민제안 아

이디어를 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윤섭 부군수는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해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소통평정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주민들에게 풍수해 대비 노후간판의 손상이나 결함 시 보수, 환경욕공원은 대상마을 박서우씨 등 주민 8명이 총 33그루의 나무를 현수한 바 있다.

이 같은 수목 기증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허투루 쓰거나 버려지는 것을 막고, 사업추진시 예산을 절감하게 만드는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높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한신호 산림축산과장은 “나무 심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몇 년 동안 정성 들여 기른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익 목적으로 소중하게 재활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들의 현수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나무 기증 활성화로 예산절감

완주군에서 나무 기증이 활성화되면서 지원 활용, 예산절감과 함께 애항심까지 고취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산림지원 활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무은행에 주민들의 수목 기증이 붐몰을 이루고 있다. 올해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나무은행 사업에는 6명(개인 5명, 단체 1개)의 주민이 7종, 1059주를 기증했다.

기증된 나무는 90% 정도가 소나무인데, 수령(樹齡)은 7~10년, 수고(樹高)는 2~3m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 주목, 느티나무, 벚나무, 철쭉 등

도 나무은행에 기증됐다.

군은 기증된 나무 가운데 상태가 좋은 수목은 숲 및 녹지공간 조성지에 즉각 이식하고, 나머지는 3~4년 나무 은행에서 관리한 뒤 각종 공사에서의 조경수로 활용하거나 가로수 등으로 식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산레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 읍민들은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수목을 기증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9명으로부터 노각나무 등 총 98그루를 기증받았다.

군과 삼례읍은 이중 호랑각시 1그루, 노각 5그루, 팽나무 1그루 등 총 9그루를 자치센터 부지 내에 심었다.

관람객 증가·소득 창출

무주산골영화제 평가보고회

무주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무주산골영화제 황정수 조직위원장과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상영규모 및 방문객수, 관람객 분포 등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됐던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내용을 결산하고 △관객 만족도 조사결과와 △자체 평가 결과 등을 공유했다.

군에 따르면 27개국 82편의 영화가 상영됐던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에는 5일 간 2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80% 이상이 타지 방문객)했으며, 월드프리미어(전 세계 최초 상영작)2편, 국내 최초 상영작 3편, 개봉예정작 9편, 국내 영화제 상영 미개봉작 16편 등 신작 30편을 확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감독 및 배우들과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와 산골토크’도 총 25회가 진행(전년 대비 각 4회씩 증가)돼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마을로 가는 축제(10개 마을 참여, 4,652명 참가, 4,860만 원 소득 창출)를 비롯한 반딧

불이 신비탐사(6월 4일~5일 운영, 1,527명 참가, 659만 5천 원 소득 창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영관 주변 등나무운동장에서의 먹거리 부스(영화제 기간 내 1천 6백여만 원 매출)와 농·특산물 판매장(영화제 기간 내 1천 7백여만 원)운영, 그리고 반딧불이시장(6월 3일~5일 운영, 2천 1백여명 방문, 1천 8백여만 원 매출)을 운영하면서 무주를 알리고 소득을 창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산골영화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인력확충, 주말 상영 공간 확대, 셔틀버스 확대운영, 20~30대 외지 관객을 위한 부대행사 개발, 무주군 주요 문화 인프라와의 연계 확대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론 지적됐다.

무주산골영화제 황정수 조직위원장(무주군수)은 “중요한 것은 휴양영화제로서 무주산골영화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며 “잘된 것들은 보완해서 발전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해결을 해서 무주가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공원

최성규 무주경찰서장 취임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사진)는 11일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최성규 서장은 경찰대학 7기로 91년 3월 경위로 임용됐으며, 98년도에 무주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역임한바 있고 2005년 전북 김제서 생활안전과장, 전북보안 의사계장, 경찰청 외사기획과, 멕시코대사관과견 등 각 부서를 두루 거친 베테랑 경찰이다.

이날 최성규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무주에 발령받아 일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직인 간 소통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주민중심 치안활동을 펼쳐 내실 있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고령저 여름딸기 ‘인기’

무주군이 여름딸기 국내육성 품종을 확대 보급해 고령저 무주딸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군은 올해 무풍면 일대(해발 900m) 2.3ha규모(11농가)에 여름딸기 모종과 딸기 전용 산토, 양액재료, 자묘생산 자재 등을 지원했으며 딸기재배를 위한 현장 컨설팅(국립원에특작과학원)과 기술교육, 클로렐라 배양 및 공급(국립농업과학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수확에 들어간 무주군의 여름딸기는 4월에 이미 식자재 유통업체(위산인)와 대전 성심당에 판매계약을 마치고 전량을 납품 중에 있다.

반딧불밭기생초조합법인 조성익 대표는 “무주딸기는 일교차가 큰 고령저 기후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제과제빵재료로 선호도가 높다”며 “국내품종이라 로열티가 없는데다가 품질도 좋아 인기가 있는 만큼 무주딸기의 명성이 농가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재배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진안군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인 등화장치 지원에 나섰다.

군은 동령경운기 및 트랙터 운행 시 추월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충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등화장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 동안 등록된 농기계 대수는 10%줄었는데 반해 1만대당 사망자수는 오히려 28% 증가했다.

이에 군은 등화장치 지원을 위해 총 450대,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 보조로 무표지원 함으로써 농가 부담 해소 및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돼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고품질 수박생산 교육

진안군은 지난 3월부터 진안고일 고품질 수박생산에 대해 수박교육을 2개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저 시설하우스 수박교육은 3월부터 7월 말까지 이론 교육, 선진지 견학, 현장컨설팅 등 총 10회 중 8회를 실시하였고, 7월 9일은 고품질 수박생산에 대해 경북 봉화군 수박재배 단지 견학을 다녀왔다.

수박 품목별전문교육은 농업기술원 고창 수박시험장과 함께 7월 중순까지 총 5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방식은 현장 컨설팅 위주로 이후에 재배 농가를 돌며, 야간에 농가포장에 대한 문제점과 수박 병해충 및 재배기술 보급교육으로 진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도로 깨끗해진다

노면청소차량 정기 운행

장수군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고 정기적인 운행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고 이번 달부터 관내 가로청소에 투입했다.

노면청소차량은 도로변 곳곳에 쌓인 모래먼지와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특수차량으로 이번에 장수군에서 구입한 노면청소차는 살수 장치를 부착해 물청소까지 가능하다.

군은 노면청소차 운행으로 주요 도로변에 쌓여있던 미세먼지, 담배꽂초 등 쓰레기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거



리 조성으로 주민건강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면청소차 도입으로 기존에 환경미화원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중앙분리대 등의 청소가 가능해 미화원의 교통사고 예방, 환경미화원의 작업량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진안군은 지난 8일부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군은 건설교통과, 읍면사무소 직원 및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 전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200여점을 정비했다.

군은 연중 상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며 매분기 읍면 도시 일제정비의 날로 지정해 읍면 전역에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진안의 관문인 로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읍면소재지 및 주요 간선도로변을 상시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정비하고 있다.

또한 상가주들에게 풍수해 대비 노후간판의 손상이나 결함 시 보수,

보강, 철거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달함과 동시에 불법유동광고물이 위험행위임을 알리고 근절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상가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서도록 유도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모니터단(54명)을 구성·운영해 출퇴근이나 출장 시 불법광고물에 대해 감시와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현수막 발생 즉시 철거하여 불법현수막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산서 중·고교생 대상 자원봉사 박람회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고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가 11일 산서 중·고등학교에서 전교생 72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날은 장수보건의료원(금연,구강,정신보건,자살예방), 장수군청소년상 탐욕시센터,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한국미유틀치운동본부전북지부, 전라

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풀잎문화센터, 옥향, 자연환경연수원,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등 13기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청소년유해환경인식조사, 시각장애체험, 보치아 체험,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자원봉사센터 안내 등 청소년권리 관련 정보 및 봉사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